

도서관탐방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도서관의 역사를 쓰는 사서들이 모여있는 곳

탐방가는 길에

만화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기존의 도서관과는 사뭇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어 기대가 많이 되었다. 만화로 온통 둘러 쌓인 도서관이라... 상상만 해도 흐뭇했다.

필자는 초등학교 때 그다지 만화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2학년쯤 절친한 친구들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탓에 친구들의 권유로 만화를 처음 읽어보았던 것 같다.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 했다가, 처음 읽었던 만화가 나의 심장을 온통 뒤흔들면서 그 뒤로는 주로 시험이 끝나거나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종종 만화책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대학생때에는 자주는 못 읽지만 읽고 싶은 만화가 있으면 꼭 사서 읽기도 하고 모으기도 했다.



(도서관 앞마당 만화캐릭터 조각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부천시 만화도서관에 도착했다. 만화도서관은 부천시북구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앞마당 공원에는 만화캐릭터들의 조각상이 놓여있어서 더욱 정겨운 풍경을 연출했다.



(벽에 그려진 그림들)

만화도서관을 올라가는 길 2층과 3층 계단 벽에는 누구나 반가워할 만한 만화주인공이 인사를 하고



(김선미 사서)

있었으며 도서관 입구에는 커다란 돌리 인형이 방문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입구에서 김선미 사서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만화도서관에 들어서면서 도서관을 재빠르게 둘러보았는데 매우 조용했고 이용자들로 가득차 있었으며 모두들 열심히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보존실로 자리를 옮겼다.

만화도서관이 만들어진 배경

우리는 부천시가 만화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궁금했다. 부천에서는 1998과 1999년에 걸쳐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 무렵 국제영화제,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이 부천에서 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에 대한 사업이 기획되었고, 프랑스 앙골렘 등의 도시를 벤치마킹해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화정보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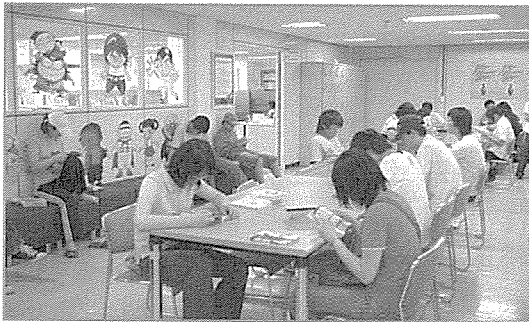
1998년과 1999년 2년 간 집중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2000년 2월 4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전문도서관 문을 열었다.

만화도서관은 국내외 만화단행본 및 관련자료, 회귀본, 만화원고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용시키고 있는 전문도서관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120개교라고 한다. 세계 각 나라에도 특색 있는 만화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만화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실별 구성 및 운영

만화도서관은 약 292평 규모에 18만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층별 구성은 총 1관 4실(일반열람실, 아동열람실, 영상열람실, 보존실)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실에는 전문자료를 비롯한 국내외 만화자료가 10만여 권 보존되어 있다. 보존실을 제외한 열람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존실은 주로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학술 및 연구의 목적일 경우에 이용되지만 일반 이용자도 원하는 경우 사서에게 신청하면 1일 2종을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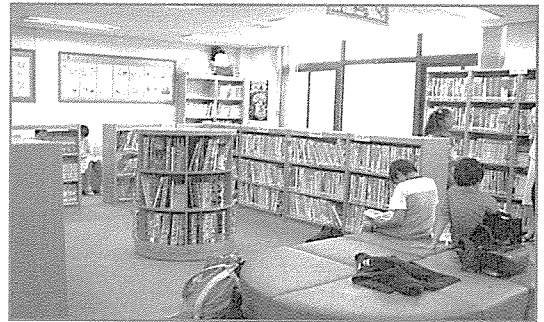


〈일반열람실 풍경〉

일반열람실과 보존실은 무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년 간 이용자는 2005년 12월 기준 77,218명으로, 일 평균 238명 정도가 이용했다.

도서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안내데스크에서 사서와 만날 수 있다. 데스크 오른쪽으로는 일반열람실이, 왼쪽으로는 보존실이 위치해 있다. 일반열람실은 보통의 어느 도서관과 같이 서가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 등이 마련되어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다만 서가에 온통 만화책들로 가득하다는 것과 유리창에 온통 만화캐릭터들이 이쁘

게 장식되어 있었다는 점이 다른 도서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새로 나온 신간 소개 코너에 흥미가 생길법한 만화책들이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었다.



〈아동열람실 풍경〉

아동열람실은 일반열람실 안쪽에 있는데, 서가 중간중간 공간이 있는 곳에는 캐리커 인형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쇼파, 긴 의자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영상열람실 풍경〉

아동열람실 한쪽 공간에는 영상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열람실은 이용자들이 비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DVD와 VIDEO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삼삼오오 짝을 지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중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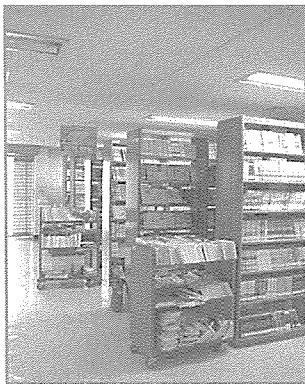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다.

요즘 같이 교육만화와 교육 비도서 자료 등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 모자가 같이 시청하는 경우, 친구들끼리 와서 만화영화를 보는 경우 등 도서관을 만남의 장소로, 커뮤니티의 장소로, 휴식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

보존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던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2006년 1월까지 보존실을 개가제로 운영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의 훼손과 보존의 문제가 생겨 2006년 실별 재배치공사를 하면서 현재는 반폐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문을 통유리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보존실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보존실 자료들은 모두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희귀자료, 소장품, 원고 등을 비롯해 1990년대 이전자료는 2001년 10월 12일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 수장고로 이전했다고 한다.



〈보존실 풍경〉

만화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신간만화의 경우는 매일 수서를 한다. 구간만화는 수시로 구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하고, 구해야겠다는 책이 있으면 어디든 달

려간다고 한다. 때문에 만화도서관은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만화가, 만화연구자 등도 수시로 이용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서들의 이러한 능동적 자세에 '진정한 전문가'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만화도서관의 주요 사업

만화관련자료 기증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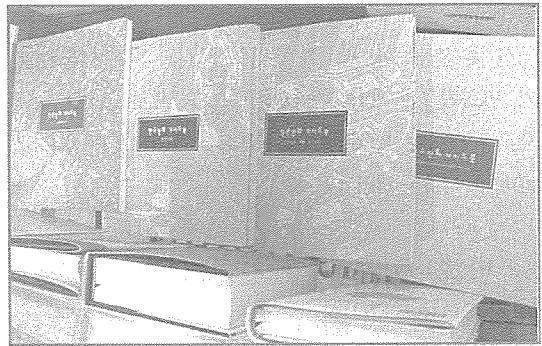
만화도서관은 만화가, 일반인, 만화연구자, 정부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만화단행본, 만화원고, 이문서 등을 기증 받아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증



〈만화자료기증자의 벽〉 모습

자에게는 '만화자료기증자의 벽'에 명패를 걸어주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소장자료집 발행



〈소장자료집 모습〉

만화도서관은 또한 전문도서관으로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구만화가이드북』, 『일본만화가이드북』, 『한국만화가이드북』(동인지원, 만화잡지원, 학습만화편) 등 주제를 정해서 1년에 한번씩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만화도서관

만화도서관을 처음 운영했을 때부터 자료가 모두 '만화'라는 특수성과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만화문화 확산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만화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교자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00~30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구청 민원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국군부대 등 16개관에 설치했다. 사서들은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얻는 것도 많다고 한다. 앞으로 기내, 열차 등 다양한 영역으로 더욱 확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화독서지도교실

만화독서지도교실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교실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독서지도에 쓰이는 교재가 모두 만화로 만들어져있을 뿐이다. 만화독서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고조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교재는 매번 자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만화

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만화독서지도교실에서는 만화에 대한 이해, 만화로 자기소개하기, 우리 역사 및 전통문화, 광고를 만화로 그리기, 역사신문만들기, 만화박물관 견학 및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방학중에만 운영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지역의 컴퓨터, 전문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만화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만화전문도서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다행히 부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 개관 이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전문도서관으로 착실히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서비스 부분보다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서들은 말한다. 그래서 2006년에는 이용자서비스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 차별화,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김선미 사서는 만화도서관 초창기부터 도서관지킴이로 활동을 했다. 처음 만화도서관을 꾸릴 때부터 최초의 만화도서관이니 “역사를 새로 쓴다”는 사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잘 따라주었다고 했다. 아마도 사서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만화도서관이 지지를 받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도서관으로 자리잡는 초석을 마련한 것 같다.



〈한국만화박물관 입구〉

만화도서관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는 길에 만화박물관도 잠시 둘러볼 기회가 생겼다. 만화박물관에는 만화의 역사, 장르로 보는 만화, 회귀만화, 한국의 주요작가, 작가들의 주요 소장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지금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따로 떨어져있지만, 2008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건물에 도서관과 박물관이 함께 이전을 한다고 한다.

현재 만화도서관의 이용자의 50%는 성인이용자이고 50%는 아동, 청소년층이라고 한다. 앞으로 만화도서관은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 만화가들의 좋은 창작활동을 돕는 전문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 만화하면 ‘부천’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앞으로 만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덜 수 있도록, 만화를 통해 얻은 좋은 점들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만화도서관이 큰 몫을 해내리라고 믿는다. 만화도서관의 역사를 쓰는 사서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말이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

9월에는 슬기샘도서관을 찾아갑니다.